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호 [루게 제24812호] 주제104(2015)년 2월 3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하노이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 푸 쩡 동지

나는 월남공산당장전 85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귀 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월남공산당은 창건 후 오늘날까지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해방투쟁과 반미구국투쟁,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월남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인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월남공산당의 평도밀에 월남인민이 호지명주주의 뜻을 받들어 변혁하는 사회주의월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한걸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당 제11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주제104(2015)년 2월 2일 평양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축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제104(2015)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축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지야련방 대통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수리아인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탄 자니옹 공화국 대통령,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몽골 대통령,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대통령, 쿠웨이트국가 주석,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인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필리핀공화국 대통령, 기브라르공화국 대통령, 파키스탄공화국 대통령, 투르메니스탄 대통령, 프르나코과 대통령,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탄 자니옹 공화국 집정관들, 기네공화국 대통령,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무력총사령관, 르만다

공화국 대통령,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에리트리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김일성김정일기념 공동리사장, 유엔사무총장, 로지야련방 하버츠크르강장 운영, 하버츠크르시장에게 축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국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답사길을 열어주신 40돐기쁜 전국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이 진행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일 전국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은성어린 선물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을 실은 비행기가 오가산령을 가까이 하고있는 답사행군대오의 상공에 나타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행군대기발과 붉은기들을 흔들며 격정을 북돋아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또 울리었다.

답사행군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끊임없는 전진시찰과 현지지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먼길 떠나기 자식들을 위하여는 친어머님의 심정으로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수록 세심히 보살피시며 다심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여웠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학생

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와 전총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군들, 답사행군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최봉태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에는 답사행군에 참가한 학생소년들이 혁명의 천리길, 력사의 천리길을 아로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광복의 천리길을 총정의 천리길, 선군혁명의 천만리길로 이어나가기 를 바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답사행군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들을 수명으로,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생각깊이 새기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지니셨던 혁명의 높은 뜻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담대한 배짱을 더욱 깊이

체득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답사행군대원들이 광복의 천리길로 정을 따라 걸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를 철석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는 선군혁명의 척후대, 후비대로 역세계 준비 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답사행군대원들의 모습을 언제나 보고계신다는것을 명심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씩씩하게 행군하여 력사의 땅 포령에 건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영광의 모임을 울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답사행군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 선물을 곁집속에 받아안은 학생소년들은 높고 험한 오가산령을 단숨에 넘을 열의에 넘쳐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행군길을 이어 나갔다.

본사기자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탄생 73돐경축 에스빠나전국준비위원회가 1월 24일 마드리드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

조선과의 친선협회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

하여 집회, 도론티 등 경축행사를 열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슬로모네스코 위원회가 1월 25일 브라제 슬라바에서 결성되었다. 경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

# 인민생활향상의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위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받아

###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높이

신민주주의적 지배인 주체는 축산업발전의 불멸의 대강령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내놓았다. 로작을 새겨주신 새길수록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책으로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고기와 알생산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당이 바라는 웅대한 높이에 올라서지 못하였다. 먹이가공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생산기지를 꾸리고 이에 맞게 축산농가공설비들을 갖추어놓았다 하면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고기와 알을 더 많이 생산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교훈은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투사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사의 각오안고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기 위해 뛰고 또 뛰며 공장안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

안은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불타는 총정의 명세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 모두가 로작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축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결의에 넘쳐있다.

### 두단오리공장 직장장

식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받아안고 책임을 다해갈 불같은 결의로 충만되어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설비들의 만가동이자 곧 생산 실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기 배합먹이생산에 해오면서 찾은 교훈이다. 사실 오리고기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서 우리들의 임무는 매우 어렵고 방대하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삼명 투쟁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배합먹이생산에 필요한 분쇄기, 혼합기, 성형기 등의 설비를 확충하고 로컬로컬로 실행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생산을 1.2배로 끌어올리겠다. 그리하여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조국과 지도를 짜고들어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에서 증산의 불길 을 세치게 일으켜나가겠다.

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철거를 적극 받아들여 폐지의 살찌우는 기간을 앞당겼다. 그리하여 작업반에 맡겨진 고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사리원시 정방리 안옥영은 농촌세대들이 돼지와 염소, 토끼,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 수입을 높이며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가기

### 종업원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위해 일군들부터 이신작적하며 모든 관리공들이 그대로 실천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당조직의 역할을 높여 그 생활력이 나타날 때까지 단강제 밀고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우리 종업원들의 기세는 지금 대단히 높다. 우리는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끝까지 실천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영적을 깊이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며 후방사업에서도 성장의 봉화가 계속 타오르게 하였다.

남양중년화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당정책인민군으로서 종업원들앞에 지닌 자신의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물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농촌세대들에서의 개인축산은 첫걸음을 떼기 어렵지만 이익하게 달려들면 성과가 오르는 일이다. 면이문제해결에 선진적인 방법을 도입하면 그 어느 세대에서나 고기와 알, 것을 생산하여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다. 올해에 집짐승사육수를 더욱 높이고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개인축산을 장려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전국의 앞장 서겠다.

세웠다. 지난날의 축산업발전과정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찾게 되는 경험은 당정책을 충도반단 없이 끝까지 관철할 때 반드시 큰 덕을 보게 된다는것이다. 경험에서 찾게 되는 교훈도 있다.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에서 생명과 학기술을 확보하는 축산업을 중시하고 좀더 힘을 넣었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두었을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축산에서도 과학기술을 확충하고 인민생활을 집중함으로써 뜻깊은 올해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루하였다. 송도원(하리)공공장 지배인 조철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받아안고보니 자그마한 성과를 이룩해놓고 만족해하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가 축산을 하면서 찾게 된 가장 큰 교훈은 먹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없다는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시대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공장실정에서 알곡 먹이에만 매여달리던것을 이럴수 없는 일로 여겼다. 앞으로 우리는 알곡먹이소비량을 줄이면서도 고기생산량을 늘인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본받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응당 할 일을 한 우리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여는 나라에 내세워주시는 사랑속에는 계속 선구자의 영예를 떨쳐야 한다는 깊은 뜻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받아안고 우리는 결의목표를 더 높이

본사기자

### 농촌에서 고기와 알 풍년을

협동농장들에서 공동축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의 구절구절을 새길수록 신심이 넘쳐나고 하면서 화대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석호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농장에서선 첨가제에 의한 먹이가공기술을 받아들이고 비알곡먹이비율을 높여 축산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당이 바라는 높에서 축산정책을 관철하였는가를 돌이켜볼 때 찾게 되는 교훈이 있다. 먹이원천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사양관리를 과학화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다. 우리는 축산물생산에서 군적인 앞진기를 양보하지 않는 제2작업반 비육분조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모

든 작업반들에서 집짐승사육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알곡먹이소비량을 더 줄일 목표를 세웠다. 축산작업반과 모든 비육분조들에서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과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먹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들을 찾아내고 기여이 실천해나갔다. 뿐만 아니라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비육분조들에서는 500t, 축산작업반에서는 1000t이상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포진을 기름지게 가꾸어 알곡생산계획도 넘쳐 수행하였다. 문천시 통정협동농장 제3작업반장 조영준은 작업반의 비육분조원들이 축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의 사상과 진수를 뼈에 새길수록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윤택한 생활을 마련해주리께 끝없는 현시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가슴이 후터워진다. 지난해 작업반앞에 맡겨진 고기생산계획을 수행하겠다고 만족해한것이 부끄럽다. 올해에는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축산을 잘하여 전국에 소문난 운전군 윤하협동농장의 작업반들과 경쟁을 해볼 결심이다. 나만이 아닌 작업반의 모든 농장원들이 이런 경쟁열, 투쟁열을 안고 뛰쳐나갔다. 작업반원들은 빈방을 더 개간하여 먹이생산량을 늘일 계획을 세웠다. 농부산물과 자연먹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조선인민군 황기동소속부대에서— 본사기자 김성일 찍음

# 정론

# 논

## 1

바로 눈앞의 《지책》이나 이제 《불연간애》라는 말에 행복이라는 말을 붙일수 있다면, 그것도 시련이 계속되고 역경이 보다 가중되는 시기에 그것을 정확히 붙일수 있다면 그 인민의 기세는 전례없는 열의와 최고의 충만에 달아있을것이다.

조선의 2015년은 매우 활력있고 의미심장한 출발로 하여 세계의 시각을 크게 흔들었다. 《정명을 응시하시면서 힘입는 목소리로 위엄있고 파강하시고 여유가 있었다.》라는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목소리가 일시에 세계보도망을 가득 채웠다. 그런 속에 조선의 첫 1일은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주제곡인 《이제는 부림없어라》노래로 시작되었다. 신년사를 마치신 이길로 대동강방의 새 궁진인 부림없는 아이들의 집무리 찾으시어 중이 러지듯 쏟아져 더 달랠라 안기는 아이들을 껴안아 불을 다독여주시며 이룰할수 없는 격정적 휘파람이신 우리 원수님,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르며 합창하는 《세상이 부림없어라》노래를 뜨거운 눈물을 더금으시며 들으시던 그의 모습을 온 나라 인민이 다 보았고 세계가 다 보았다.

새해벽두에 인민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신 우리 원수님, 《이제껏 이렇듯 무한한 희열을 느끼신 1월의 첫 성과인 평양시비석공장의 빛나는 환광은 당정책관철의 표본인 동시에 제일먼저 울린 2015년의 매우 귀중한 포성이다. 우리의 첫걸음의 기세찬 속도를 상징하듯 우리의 장한 마라손선수는 승리의 주로를 쓴살같이 달려 1월에 벌써 어머니조국에 첫 금메달을 안고 왔다.

눈앞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첫걸음이 다르고 잡도리가 다르며 정조와 태세가 다르다. 부흥의 3대축을 틀어쥐고 과학의 기원처에 문명강국의 새로운 리징표를 세우고 황금산, 황금해의 휘황한 전망을 더 활짝 펼쳤다. 은 민족을 다시금 힘껏 꺼안고 통일강국의 대강을 높이 들었다. 대변력, 대변력, 대통로와 같은 전례없는 결단으로 민족대단결과 통일의 대문을 크게 두드린 웅대하고 꿈이 많은 우리의 2015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거세찬 태동에 역행하는 엄동의 가시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쓸어버려 얼어붙게 하고있다. 그래서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이제는 제면도 인론도 마구 저버리고 저속까지 이를테 없어 세계인론들까지 《해피당축헌정》이라고 조소하는 추태극을 벌였다. 새해벽두의 첫 조치로 우리를 겨냥한 초강도수가제를 발표했고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대법한 제안에는 폐사롭지 않은 대결자세로 응답함으로써 불안하고 괴동적인 약자의 심기를 드러냈다. 그 주안음 그대도 본따 반동일세력들은 무서워 숨어들어 락사질이나 하는 추물들처럼 본성선일대에 몰래 기여들여와 너털한 벼락을 던지고 뺨소리를 치는것으로 새해 첫 모양세를 드러냈다. 대통로를 열자는 조선의 첫출발과는 너무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이 어둡고 침울한 시작지는 바로 그들의 눈앞에 매우 치명적인 수세와 예상밖의 사태가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행복은 눈앞에 있다! 이것은 2015년의 첫 진군경에서 우리 원수님의 신강속에 가득차오른 필승의 신념이고 우리의 가까운 앞날에 대한 그의 크나큰 확신이다. 그것은 이 나라 민심의 제일 깊은 목소리이다.

혹한의 이 겨울처럼 시련은 여전히 크고 우리는 아직 허리띠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은 그지없이 밝고 조국은 나날이 넓어지고 들끓고 있다. 조선은 지금 확고부동하게 행복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그 부흥의 대문을 힘차게 열어가고있다. 도래하고있는 시대의 징표는 복잡한 혼리나 화려한 시가지 아니라 우리가 실지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참신한 약동과 일어나는 웅대한 사변속에 있다.

계속되는 어려움속에서도 우리가 해놓고 있는 일들과 말리고있는 속도 그리고 할달

두달, 한해두해 달려지고 솟구치는 우리 생활과 시대의 변화가 무엇을 향한 흐름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태동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 큰 힘이 뻗어서 나라가 쑥쑥 일어서고 문명의 빠른 가속도로 어떤것은 벌써 손에 와닿고 피부에 감촉되고 그 맛을 한껏 느끼고있다. 달아오르고 팽팽히 축적된 힘은 도처에서 분화구를 찾고 좋은 씨앗들과 흥분시키는 시도들, 한민족 나라의 모습을 바꾸는 소식들이 더 광범하게, 더 속속히 생겨나고있다.

창천거리가 한창 일어설 때 이곳을 돌아보던 외국의 한 기자단은 당신들이 래년 봄까지 이 거리를 완성할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여기에서 매일 한민족 사진을 찍어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서부러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이 열리게 될 즐거운 해들이 눈앞에 있다. 황홀하고 휘황한 시대가 더 빠르게, 더 멋있게 다가서게 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박원을 하루백일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이강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시련의 혹한의 늑미와 밝고 따뜻한 행복의 봄바람은 어디서 오는것인가. 그 믿음과 신념은 무엇으로 하여 이렇듯 새창개 썩는것인가.

만민의 태양, 절세의 은인이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들의 위대한 심장의 뜨거운 열과 숨결이 암살의 광풍을 맞받아부시며 이 땅에 뿌린 비약의 씨앗을 역세계 무르익혀 력사의 태동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행복은 눈앞에 있고 원수님만 따르면 모든 꿈이 이루어진 다. 바로 그이께서 확신하셨다. 그 행복은 바로 불멸이같은 열광을 안으신 우리의 김정은동지께서 안아오시는 인민사랑의 백화만발이다. 우리 원수님 조국의 드넓은 대지 위에 희망과 창조의 붓을 그으시며 만민의 열매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선과 색채로 완성해가시는 그 천하제일의 명화는 노래에도 못미치는 눈부신 전설의 나라이다.

얼마나 훌륭한 우리 인민이다. 대를 이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어 씨뿌려 했으며 대를 이어 일일단신 당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충직한 인민, 이런 인민을 하루씩 행복의 꽃망울, 금방성애에 얽혀 리리떠라는 말을 영원히 지나간 력사의 추억으로 만드시려는것이, 인민의 모든 꿈 꽃피우는 그 진귀한 열매와 보물들로 하라꽃 땅, 바다를 가득 채워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시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결심이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다. 엄동의 이 한겨울에 여기 장천당은 2015년의 제일 멋있는 봄, 천치적벽한 문명농촌의 첫 선경을 펼쳐보일 대경사가 막두하여 불도나기로 화했다.

그날은 뜨거운 태양에 서있고그만 해도 숨이 막히고 땅이 눈으로 줄줄 내려 누구나 그것을 찾던 지난해 여름이었다. 소문없이 이틀을 찾으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농장이 어버이수령님의 작은 수첩에 빈 부흥농장으로 적혀져 있었던 이야기와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성장해온 력사에 대하여 깊은 감회속에 다 들으시고 판리위 원장에게 남새은실농사가 무엇이 좋은가고 물으시었다. 이전보다 살림이 풍족해져가고 우리 농촌사람들이 문명해졌다는 판리위원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도 기뻐하신 우리 원수님.

이 농장은 21세기 표본농장, 온 나라가 부러워 찾아오는 농장으로 만들려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또 한차례의 천치적벽을 부르는 대작전을 펼치시었다. 어제제의 빈부농동장이 희한한 하나의 온실도시로 변하고 포천까지 정보화된 기술농사에 멋있는물고기장과 로리스 대트장에서 한껏 즐기는 호렷같은 작업반 합숙과 태양열을 리용하는 특색형주택에서 살게 되었다. 행복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고있다.

그러나 이곳 장천사람들은 골짜기는 기쁨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 들으신 온실안은 40℃를 넘어서 그의 목깃은 땀으로 꼭 젖어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건을 세번이나

게 하는 새 공기, 새 광경이 아닌가.

보다 강력한 두가지 사실에 대해 더 언급해야 한다. 하나는 이 모든 도약을 나라 력사에서 주변형세가 가장 엄중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세계제국주의렬강들과 맞서 몇차례의 전쟁을 치르는것과 같은 결사전을 벌리면서 이룩했다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몇십년에 맞먹는 이런 천치적벽이 놀람게도 이제 첫차차, 첫 한걸음, 첫 전주목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이렇게 한해가 가고 몇해가 가고 또 몇십년이 간다고 생각해보라. 대동강방에 새 선경을 펼쳐질 뭇 리파과학자거리, 세계적 인 축성의 과학기술전당, 초만원을 이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방북의 대초원이 아득히 펼쳐질 세포들관, 수산부문의 서부러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이 열리게 될 즐거운 해들이 눈앞에 있다. 황홀하고 휘황한 시대가 더 빠르게, 더 멋있게 다가서게 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박원을 하루백일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이강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시련의 혹한의 늑미와 밝고 따뜻한 행복의 봄바람은 어디서 오는것인가. 그 믿음과 신념은 무엇으로 하여 이렇듯 새창개 썩는것인가.

만민의 태양, 절세의 은인이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들의 위대한 심장의 뜨거운 열과 숨결이 암살의 광풍을 맞받아부시며 이 땅에 뿌린 비약의 씨앗을 역세계 무르익혀 력사의 태동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행복은 눈앞에 있고 원수님만 따르면 모든 꿈이 이루어진 다. 바로 그이께서 확신하셨다. 그 행복은 바로 불멸이같은 열광을 안으신 우리의 김정은동지께서 안아오시는 인민사랑의 백화만발이다. 우리 원수님 조국의 드넓은 대지 위에 희망과 창조의 붓을 그으시며 만민의 열매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선과 색채로 완성해가시는 그 천하제일의 명화는 노래에도 못미치는 눈부신 전설의 나라이다.

얼마나 훌륭한 우리 인민이다. 대를 이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어 씨뿌려 했으며 대를 이어 일일단신 당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충직한 인민, 이런 인민을 하루씩 행복의 꽃망울, 금방성애에 얽혀 리리떠라는 말을 영원히 지나간 력사의 추억으로 만드시려는것이, 인민의 모든 꿈 꽃피우는 그 진귀한 열매와 보물들로 하라꽃 땅, 바다를 가득 채워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시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결심이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다. 엄동의 이 한겨울에 여기 장천당은 2015년의 제일 멋있는 봄, 천치적벽한 문명농촌의 첫 선경을 펼쳐보일 대경사가 막두하여 불도나기로 화했다.

그날은 뜨거운 태양에 서있고그만 해도 숨이 막히고 땅이 눈으로 줄줄 내려 누구나 그것을 찾던 지난해 여름이었다. 소문없이 이틀을 찾으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농장이 어버이수령님의 작은 수첩에 빈 부흥농장으로 적혀져 있었던 이야기와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성장해온 력사에 대하여 깊은 감회속에 다 들으시고 판리위 원장에게 남새은실농사가 무엇이 좋은가고 물으시었다. 이전보다 살림이 풍족해져가고 우리 농촌사람들이 문명해졌다는 판리위원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도 기뻐하신 우리 원수님.

이 농장은 21세기 표본농장, 온 나라가 부러워 찾아오는 농장으로 만들려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또 한차례의 천치적벽을 부르는 대작전을 펼치시었다. 어제제의 빈부농동장이 희한한 하나의 온실도시로 변하고 포천까지 정보화된 기술농사에 멋있는물고기장과 로리스 대트장에서 한껏 즐기는 호렷같은 작업반 합숙과 태양열을 리용하는 특색형주택에서 살게 되었다. 행복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고있다.

그러나 이곳 장천사람들은 골짜기는 기쁨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 들으신 온실안은 40℃를 넘어서 그의 목깃은 땀으로 꼭 젖어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건을 세번이나

바우시며 돌아보신 그런 온실에 또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게 되어 정말 귀송스럽다고, 원수님, 다시는 이런 험한 길을 걷지 말아주시시오라고 농장일꾼들이 하나같이 절절히 아뢰어지 일었다고, 난 이런 곳이 더 좋다고, 계속 오고싶은 곳이라고 거듭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숨막히었던 그 여름이 다시 눈보라치는 경길로 이어지고 그 한낮의 쏟아지던 땀이 다시 심혈의 밤으로, 새벽으로 이어져왔으니 사람들이여, 눈앞의 행복을 폐사롭게 위우지 말라.

우리가 다 알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한, 이 행복에 가리워 영원히 몰락수도 있는 또 하나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거니 그것은 인어서는 조국의 억센 맥동이 되고 한걸음, 한걸음씩 더 그의 인민의 피와 땀, 무수한 고뇌의 낮과 밤이다. 얼마나 준엄한 혁명이고 얼마나 어려운 조국이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은 메일인가. 산악같은 시련과 대양같이 밀려드는 원수들과 맞서야 하는 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중하를 두어에게 걸머지신 우리 원수님, 그이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의 생노경강행군이 어떻게 자유자주 쫓겨지고있는지 우린 정녕 다는 알수 없다. 이제 들어서는 행복의 시대가 바로 그의 억만고생과 맞바꾼 불멸이같은 희열의 값이고 그 모든 문명의 열매들은 소리없이 흐른 그이의 만고공상을 눈물겹게 전하는 살아있는 목소리이고 영원한 해설문임을 사들들이여, 부디 기억하시라.

## 2

세계의 눈이 조선을 주목하고있다. 판망의 폭과 의욕은 전례를 넘어서고 조선바람은 유엔으로부터 행성의 한끝까지 매우 강한 충격파를 일으키고있다. 그것은 두가지 리유인가 하나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조선을 악과 지옥의 땅처럼 매일같이 소란스럽게 떠들며떠며 공포와 위기의식을 조성하러 떠돌아다닌다. 다른 하나는 매우 선연 언론매체들이 힘없이 토하는 이 모든 녀드러들며 한순간에 참담한 거짓과 수기로 구겨던져 버려 버리고 계속 솟구치며 올라오는 조선에 대한 놀라움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무엇이 광명이고 무엇이 지옥인가. 우리가 들어서는 행복시대는 이에 대한 환관하고도 최종적인 대답으로 될것이며 우리 해마다 이런 기적을 창조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그의 말씀, 우리가 3년을 이긴것처럼 앞으로 3달을, 300년 계속 이겨나가자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호소가 심장의 피를 끓인다. 희망은 현실보다 강하다. 지적과 만리는 지리적거리가 아니라 신념이 제는 거리이다. 신념이 굳세면 지적이요 그것이 흔들려면 아득한 만리밭이 된다. 강자의 심장은 행복이 모든 손발을 든지만 폐배주의자의 불가능의 발견자, 시련의 노예로 남아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눈앞에 있고 어디에 서나 눈앞에 있다. 다가서는 행복의 주인이 아니라 마중가는 행복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인민의 모든 꿈이고 그 창조주 주인은 바로 너와 나 우리 인민 모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 황금해의 선자들을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부르시어 이들이 이룩한 가장 소중한 고가장 성행하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하였으며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보취한 데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따라배우며 하여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서 일러 배배우 온 나라에 타만지도록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라고 하시었다.

황금해의 만년기는 오늘의 강선의 불화이다.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했던 반당종파분자들의 궤변을 쇠물증산으로 당계진 강선의 불화로부러 사회주의대문이 활짝 열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활력있는 신생공업강국 조선이 세계에 솟구쳐올랐다. 조선의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하는 폐배주의자들에게 만년의 배고동소리로 대답한 황금해의 개척영웅들은 오늘의 강선의 천리마기수와 같다. 그들은 우리의 좋은 앞날을 예고하는 매우 훌륭한 징조를 보여주었고 눈앞에 어떤 시대가 기다리고있으며

동 태 판

그것을 어떻게 마중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온 나라에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여는 황금해바람을 일으키자! 강선에서 타오른 하나의 불길로 하여 천리마운동이 일어났듯이 지금 어디에서나 침체와 폐배주의를 몰사르고 모두가 떨쳐나 행복의 재부와 보물을 늘이는 황금해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경쟁열에 살고 도처에서 새 소식, 새 경사가 전해지는 전인민적인 총동원, 총공격적이다. 사회주의바다항기가 나라의 도시들과 두메산촌에도 넘쳐났듯이 이제는 황금산의 수령항기가 온 강산을 덮어야 하며 날날항기, 파일항기, 버섯항기가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유족하고 기쁨진 웃음꽃을 피워야 한다.

시련을 견어차고 주저없이 내달리자. 동무는 황금해개척자들처럼 살고있는가. 우리가 맞이하는 행복의 시대에 풍요로운 무엇을 해놓고있는가. 누구나 대답해야 한다. 숨죽였던 바다에 기적의 만년기를 날린 슬음이 해친 난관은 상상을 초월한것이였다. 만약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이 그들만큼 결사적으로 일광을 벌린다면 조국은 일시에 불꽃불꽃 일어나 진자 눈부신 부흥번영의 시대가 오게 될것이다. 바로 그들이 잠은 열치는 당정책의 실천적모범이었다. 당정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심혈과 금옥같은 사색과 명철을, 억척찬력의 피땀의 자유이 스며있는 불멸의 유산이다. 그것은 우리 원수님의 천체적애지와 웅대한 설계도, 인민의 리상이 집대성되어있는 행복창조의 교파서, 만능의 열쇠이다. 이 교장은 살기 좋아 웃음꽃이 피는데 저 교장은 왜 살림이 퍼지지 못하는가. 저 단원은 도식과 경계를 깨고 탄력있고 진취적으로 힘없이 도약하는데 이 단위는 왜 아직도 넓은 방식을 붙잡고 제자리걸음만 하고있는가. 남들은 소문없이 클집클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데 이들은 왜 우는소리가 많고 빈발로 고향만 하는것으로 그치는가. 어떻게 되어야 어떤 사람든 한해에 수십만의 물고기를 잡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의 몇분의 1도 잡지 못하고있는가.

당중앙이 결심한 어떤 문명의 창조물도 척척 밀어내우고 그 어떤 세 거러도, 유원지와 공원, 내산은일도 쇠망의것으로 만들어놓으며 무엇이든 불가능을 모르고 하나하나 당정책을 제배해, 확실하게 펼쳐나가는 인민군대의 당정책옹위정신과 끈기이기에 따라배우는 모범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아니라 자신의 품모와 일본새로 폭배어있어야 한다. 전후 7,000세대분의 재부와 자금을 가지고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14분동원에 주력 한해내씩 조립하여 평양속도를 창조했던 천리마시대처럼 오늘의 새로운 평양속도가 창조되어야 한다. 우리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그날 작아도 고추알같은 공장, 소문없이 큰일을 한 공장이라고 치하하시며 이리 새로운 생산공정을 더 앞당겼는데 부지가 작다고 몇몇이나 위우시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업을 주시면 우리는 하늘에라도 깃짓속되나라고 대답한 창조주 주인은 바로 너와 나 우리 인민 모두이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눈앞에 있고 어디에 서나 눈앞에 있다. 다가서는 행복의 주인이 아니라 마중가는 행복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인민의 모든 꿈이고 그 창조주 주인은 바로 너와 나 우리 인민 모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 황금해의 선자들을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부르시어 이들이 이룩한 가장 소중한 고가장 성행하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하였으며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보취한 데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따라배우며 하여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서 일러 배배우 온 나라에 타만지도록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라고 하시었다.

황금해의 만년기는 오늘의 강선의 불화이다.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했던 반당종파분자들의 궤변을 쇠물증산으로 당계진 강선의 불화로부러 사회주의대문이 활짝 열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활력있는 신생공업강국 조선이 세계에 솟구쳐올랐다. 조선의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하는 폐배주의자들에게 만년의 배고동소리로 대답한 황금해의 개척영웅들은 오늘의 강선의 천리마기수와 같다. 그들은 우리의 좋은 앞날을 예고하는 매우 훌륭한 징조를 보여주었고 눈앞에 어떤 시대가 기다리고있으며

동 태 판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로 마 까 히 라

이탈리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지오 마따렐라**각하

나는 당신이 이탈리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기회에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호상 리익에 맞게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와 이것들을 축원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4(2015)년 2월 1일 평양

# 당과 국가 책임 일꾼들

## 원산 구 두 공장 관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대한 따듯한 은혜로운 사랑에 의하여 세상은 내 놓고 자랑할만 한 로동자들의 공전, 안락으로 흠잡을데 없는 만경짜리 공장으로 일신된 원산구두공장을 2일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당,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이 참관하였다.

지난해 7월 공장을 개건할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천치적벽한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없는 은정에 대한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참관자들은 구대의 혁명사적 표식비와 새로 꾸민 연혁소개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넘칠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원산 구 두 공장 관



# 조국은 마식령스키장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화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분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마식령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친다. 스किन을 신고 너도나도 날개돋친 듯 지쳐내리는 사람들의 모습, 밤하늘의 은하수를 방불케 하는 눈부리 아득한 스키주로, 불빛넘치는 마식령호텔...

불수록 아름다운 한복의 그림자다. 수수천년 잠을 자던 마식령에 이처럼 희한한 절경 펼쳐졌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자랑 또 어데 있겠는가.

마식령스키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우리 시대, 참으로 멋있는 시대에 일떠선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다.

말도 넘기 힘들어 쉬어넘는다는

천천히 산발-마식령, 허나 지금은 인민의 문명이 꽃피는 희한한 세계이다.

스किन을 먼저 탈가, 삭도를 먼저 탈가, 아니면 희한한 마식령호텔에 먼저 가볼까?

원논의 광야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도 황홀하고 느껴보는 정서가 하도 깊숙이 사람들 누구나 감탄한다.

기쁨에 넘쳐, 행복에 겨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한없이 즐거웠다.

대화봉의 정점에서 끝없이 뻗어내린 주로를 보노라니, 그우를 지쳐내리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이 문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 외진 산중에서 우리의 맛, 우리 문명의 맛을 보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행복의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행복의 뿌리!

기쁨에 겨워 한껏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이여, 우리 잠시 추억의 갈피를 먼저 보자.

위대한 사람, 마식령의 만단사연을 다시 한번 새겨보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 사랑의 뜻을 받들어 마식령에 세계 일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하길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찬바람부는 12월에도,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험한 건설장을 찾코 또 찾으면서 마식령전역에 투쟁의 불을 지펴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며 거룩한 사랑의 역사를 수놓으신 우리 원수님, 돌부리 솜은 험한 산발을 오르시던 잊지 못할 그날의 사연도,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설날에 완공된 스키장을 찾으시어 우리 원수님 타보신 가슴치는 삭도이카기도 마식령의 굽이굽이가 다 전하고있다.

지금도 풍광삭도의 의자에 앉아서 대화봉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볼 때면 생각도 깊어진다.

《길들이기》작업중에 있는 삭도의 그 차디찬 의자에까지 앉으시어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영상을 텔레비전화면에서 보으며

그때 온 나라 인민이 얼마나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있었는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그리고 마음속전정을 터치었다.

아직은 누구도 타보지 못한 그 삭도를 우리 원수님께서 타시더니, 세상에 우리 인민같이 복받은 인민이 또 어데 있었는가.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완공된 스키장을 안겨주시려 바쳐오신 우리 원수님의 로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자한자 쓰신 력사적인 호소문을 건설에 펼쳐 나신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주시었다.

《(마식령삭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6월의 그 호소문은 군인건설자들의 기세를 총천하게 해주었고 용기를 배배해주었다. 그리하여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력을 다시금 만천하에 떨치자는 인민군건설자들의 합성이 마식령전역에 더욱 힘있게 울려퍼졌다.

금시라도 귀가울이면 달려올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갈 결의를 안고 천연암반을 깨치던 병사들의 그 함마소리.

대화봉의 정점에 올라서면 금시라도 눈앞에 어려울듯, 격전의 불도가니 끊어번지던 마식령의 하얗은 낮과 밤들이.

질풍전, 마대전, 썰매전... 험거운 전투였다. 자연이 이기느냐, 인간이 이기느냐 하는 판가리격전이 벌어지는 전투장에서 우리 병사들은 오직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한치한치 주로를 뚫었다.

기계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산비탈이어서 오직 두주먹으로 스키주로를 닦았고 손바닥이 부르르도록 도끼질과 톱질을 하였으며 함마와 정대로 암반을 깨냈다. 어깨에 두터운 떡살이 배기도록 나무와 돌을 겨나르면서도 그들은 오허리 웃으면서 달했고 노래 불렀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고향집단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한 우리 병사들의 애국심은 또 얼마나 뜨거웠는가.

눈이 쌓이면 땅이 보이지 않는 스키주로에서 손바닥두께정도의 높낮이차이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스키장 주로우에 연필보다 더 가느다란 나무뿌리가 눈에 띄어도 자기 몸이 박힌 가시처럼 여긴 우리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발끝에 채일가말가 한 돌뿌리가 마음에 걸려 정대와 목뿔이로 뜯어냈고 자그마한 시내가에도 용벽을 쌓았으며 길옆에 뿌리가 조금 드러난 나무 한그루도 스쳐보지 않았다.

병사들의 이런 힘, 이런 애국의 마음이 뿌리가 되어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이다.

잠깐이면 지쳐내리는 스키주로의 한치한치를 위해 우리 병사들이 바친 피와 땀을 우리 다는 헤아릴수 없다.

가슴뜨겁다. 눈부리 아득히 뻗어내린 스키주로 한치에도, 마식령호텔의 기둥 하나, 휴식터의 의자 하나에도 그리고 구름속을 날오는 삭도 하나

에도 우리 병사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어 가슴이 뭉클 젖어드는것을 금할수 없다.

우리 비록 병사들의 위훈의 자욱다 헤아리지 못해도 마식령의 굽이굽이 그날의 목격자인 천천의 산발들에 뿌리박은 소소리높은 나무들이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니 이 희한한 문명의 세계에서 행복을 누릴 때 마다 사람들이여, 부디 생각하시라, 그리고 잊지 마시라.

오늘의 이 행복, 이 기쁨, 이 웃음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과 빛나는 위훈이 우리 행복의 뿌리로 되었는가.

해발 1360여m의 스키장정점에서 눈부신 백설주로를 지쳐내리며 우리는 마식령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온 세상이 소리높이 웨친다.

조국은 병사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우리 원수님의 병사들을 자랑하라!

본사기자 오 은 별



선군시대의 대기 넘비적 창조물 - 마식령스키장을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과 위훈을 전하는 력사의 화폭들

얼마전 마식령스키장을 찾았던 우리는 류다른 편지들을 보게 되었다.

매혹적인 체육문화기존인 마식령스키장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낸 사람들이 마식령스키장을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에게 쓴 감사편지였다.

어느 편지에도 받을 군인들의 소속이나 직무, 군사정보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그 편지들에서 인민들은 한복소리로 터치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사들의 위훈을 잊지 않겠다고, 우리 인민군인들이 제일이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숨배어있습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했던 군인건설자들이 그려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이었다. 인민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 그것을 위해 군인건설자들은 마식령의 험준한 산발들에 피와 땀을 아낌없이 쏟은 것이다.

지금도 마식령스키장에서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서있다. 조국보위의 최전방과

가슴속에 간직된 불타는 애국의 지향이었었고 끝없는 창조열정이었으며 값높은 투쟁과 위훈의 보람이었다.

인민들의 웃음넘친 모습에는 언제나 병사들이 서 있었다.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사랑감을 의무이기 전에 망심으로, 마땅한 본분과 의리로 여기는 우리 인민군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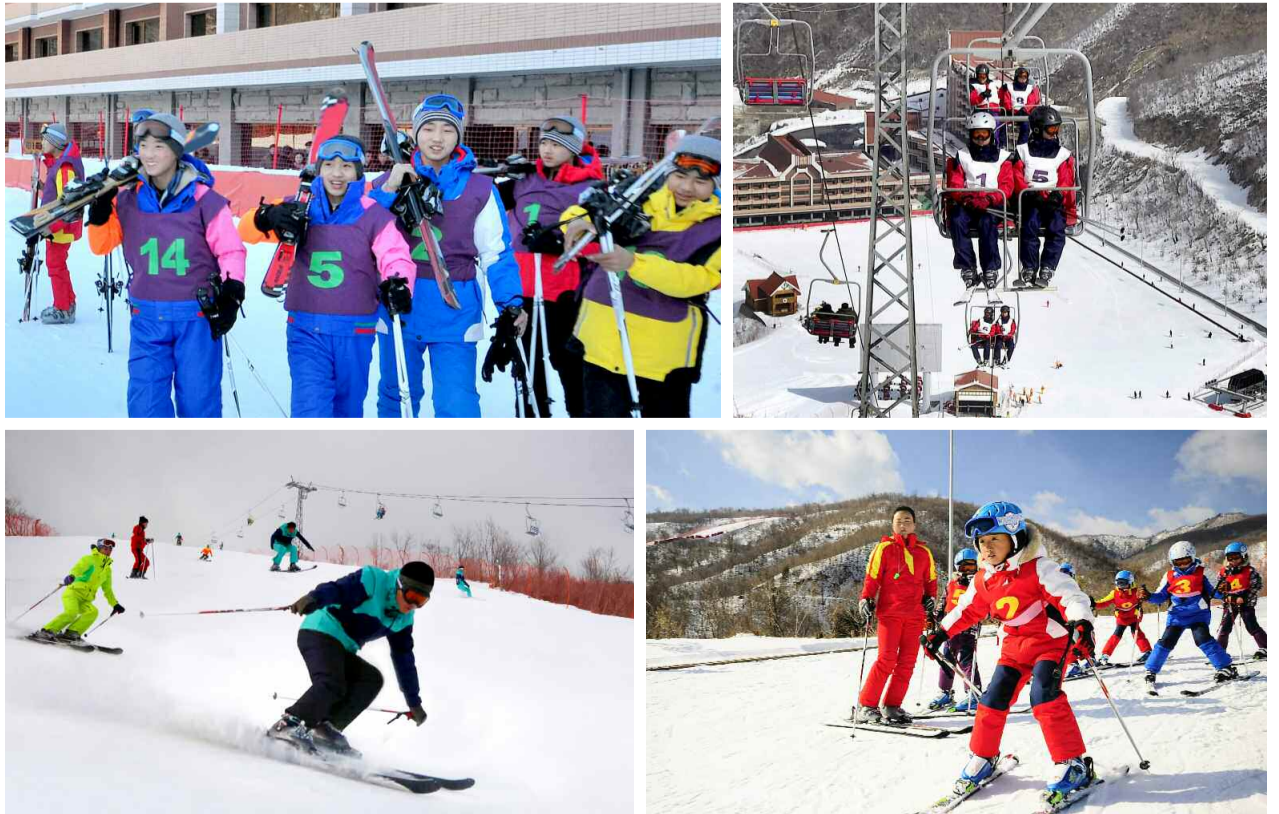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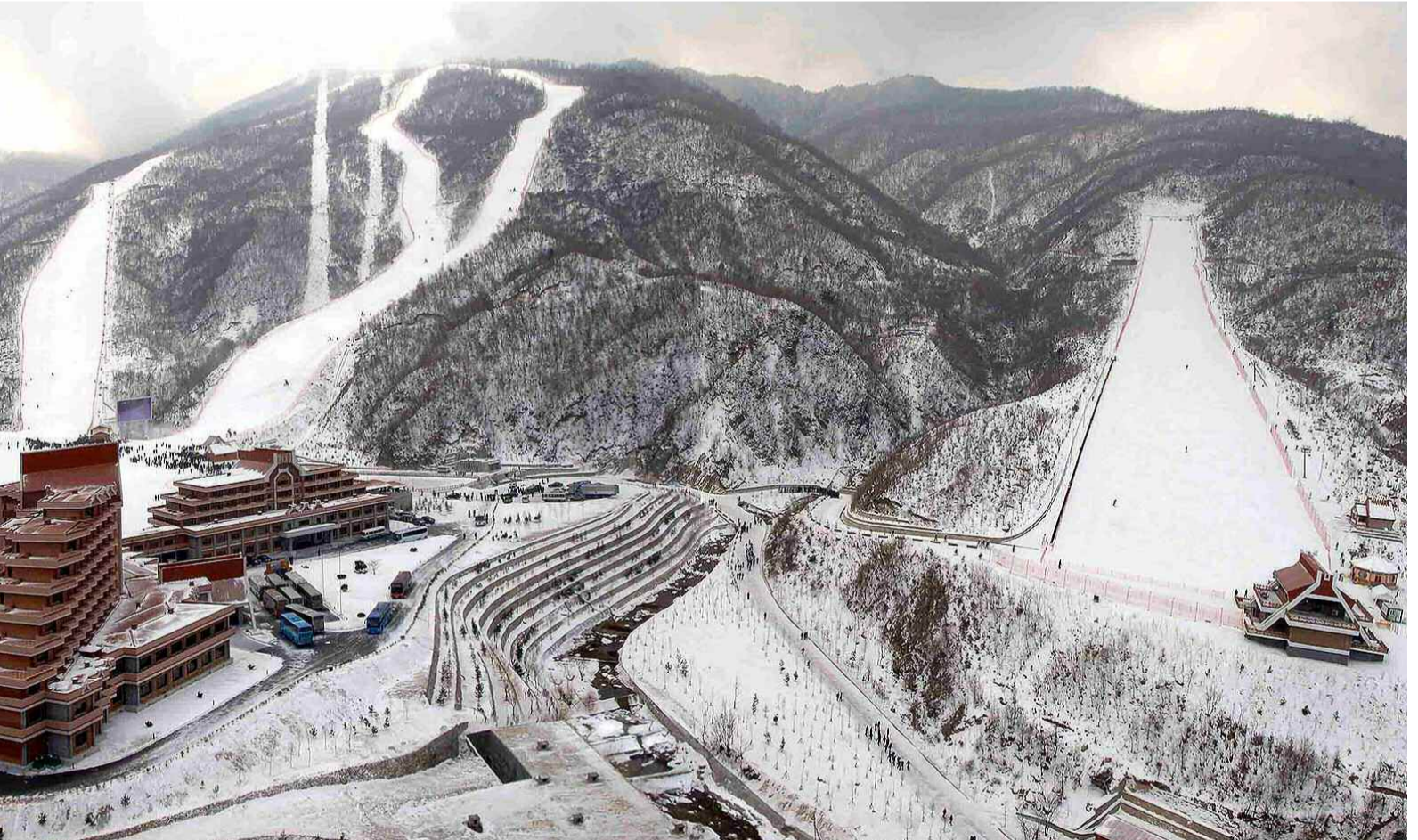
자기의 이름앞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매일에도 우리 병사들의 심장이 가리키는 리정표는 오직 하나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 어떤 가식이나 꾸밈이 없는 인민들의 진정이 담긴 편지들은 조국명 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쉼없이 전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가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를 전하며,

본사기자 조 경철



오늘의 이 행복, 이 기쁨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영원히 잊지 않고 두고 두고 전해가리

본사기자 역음



# 제국주의자들에게 자비를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총대

우리 공화국을 제압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파우지하며 지배하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역사의 반동들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나 압살해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진계주의》요 뉘오 하고 결고들면서 반사회주의악선전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벌이고있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그 무슨 《봉괴》니 뭐니 하고 떠벌이며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헐뜯고 비방중상하는데 앞장서고있다.

미국이 《전략적인내》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압박과 경제책동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그것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힘에 의지하여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데 우리의 사회주의의 근본특징이 있고 그 우월성과 위력이 있다.

우리 인민은 인민의 장구한 기간 조업한 혁명실천을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세상이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라는데 심장을 떨고있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하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철리 뼈에 새겨진 우리 인민의 그처럼 엄숙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해울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범접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와 같이 역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꺾고 고수하며 전민군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는 세상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이 존엄높은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해 이리저리 퍼공하며 시비질하는것은 우리의 불멸성과 위력에 겁을 먹은자들의 최후발악에 불과하다.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타진인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것이라고 공언하여 짓어대는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오직 단호한 군사적대응으로 결판을 내야 한다.

미국이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와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는 무자비한 반미성정을 벌릴것이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며 원수들의 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대응타격으로 짓밟아버리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은 오늘 하늘에 닿고있다.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철저히 소멸해버려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우리의 존엄, 우리의 제도를 해치려는 원수들을 추호도 용서할것은 없는 반의 총대이다. 총대를 확고히 틀어쥐면 드시 승리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실천적경험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적들의 싸움은 결코 무장장비의 대결, 물리적결의 대결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혁명은 사상과 신념의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고있다.

사상으로 다져지고 신념으로 역세어진 총대만이 혁명을 떠밀어나가는 강력한 총대로 된다. 이것은 만년을 이겨낸 우리 혁명실현의 역사적총화이다.

사상과 신념은 우리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게 하는 기본바탕이다. 우리 혁명군대는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신념을 체질화하고있는 사상의 장군, 신념의 장군이다.

우리의 혁명군대는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이라는 자기가 투철하고 선군사상의 관철자로서의 의지가 비사상적 선군혁명의 매달을 확인하는 사상의 장사, 신념의 장사들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은 그 어떤 피소성력에도 느끼지 않는 신념을 간직하고 부닥치는 역경속에서도 백전백승을 펼쳐가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선군의 길에서 노도와 같이 질풍천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앞에 질겁하고 있다.

우리가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정전군사적대결에서 전진승승하고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경이적성취를 달성할수 있었는 다 사상과 신념의 총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총대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것은 선군시대의 자랑찬 모습이다.

군마전에 진행된 적해살목포에 대한 순장타격후엔서서 우리 인민군인들은 백전백승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들

이 정신차릴새 없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빼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목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오만방자하고 파멸치하기 그지없는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땅바닥에 구겨박을 백두산혁명강군의 열적의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혼란은 미제가 새 전쟁도발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방대한 침략부력을 끌고 조선반도부근 작전수역에 기여들기만 하면 적항공포함과 함재기들은 물론 우리가 마음먹은 적의 모든 목표가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후면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미제가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요란하게 저들의 군사적위력을 뽐내는 동시에 항공포함들이 한갓 비대한 변태동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제의 어떠한 신행무장장비도 우리 군대를 놀래울수 없다는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고있다.

우리 인민군은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통치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

침략과 도발의 원흉, 용악한 강도의 무리 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0.001mm라도 침해하고 건드린다면 우리와 일체지 아니 못하는 가장 무서운 참판을 약의 총탄산인 미군본토에서 당하게 될것이며 세계는 진말을 모르는 백두산총재가 무생계분할하는 용암속에서 미제가 어떻게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라 명 성

# 부당한 대조서정책의 사들

로씨야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조진연연구센터 소장 알렉산드르 케빈이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부당한 대조서정책의 산물이라는 데 대해 까맣혔다. 그는 1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대조서정책에 관한 미국, 일본, 남조선 사이의 모의가 벌어진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은 미군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조차 이 연습이 북침 특히 평양을 노리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는 미국이 최근 조선에서 새로운 핵시험을 진행할것을 고대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미국은 《소니 리처스》 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구실로 조선에 추가제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 로씨야 전문가 주장

여름 미국회 하원에서 채택된 광범위한 새로운 대조서정책안들이운데서 첫번째 방안이다. 제재대상은 조선뿐이 아니다. 조선과 금융 및 무역분야에서 협력하는 국가의 개인과 법인 등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또한 조선의 화물이 선적된 비행기와 선박이 리용하는 비행장과 항구도 속한다.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선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드는것이다.

그는 그러나 조선이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카드인 평화적협안을 내놓음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회 상원 의원 윌리엄 볼브라이트가 미국의 태도를 《권력의 오만》으로 규정하였다. 바로 《권력의 오만》 다시말하여 안전에 대한 조선의 우려를 넘어서 두지 않는 미국의 정책으로 하여 세상은 핵무기를 보유한 조선을 가지게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대조서정책은 남조선과 미국, 그의 동맹국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까맣혔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군사를 통제하는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있다.

#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

## 지역기구인사 압하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총서기 누리 아브둘 라자크 후세인이 미국의 대조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1월 2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조국애양 일꾼들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풍로를 열어나가려는데로부터 조선반

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

## 발 표

키고 조선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서적대조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수리아에서 내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것과 관련하여 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수리아안정부와 반정부세력 대표들 사이에 수리아위기를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미국과 서방의 로씨야인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행위로 하여 수리아에서는 전란과 투쟁참극이 계속되고있으며 이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수리아인민과 그 외세의 간섭이 없이 수리아인민자체의 힘으로 정지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일찌기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그는 1930년 2월 여러 공산주의조직들을 합쳐 월남공산당을 창건하였다.

이것은 월남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다. 혁명의 전위부대인 당이 창건됨으로써 월남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거둬들이 무력침공을 용감히 짓고서 자주적이며 변혁하는 사회건설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월남공산당은 장구한 기간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월남인민인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지령도 하였습디다.》

월남공산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월남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 간고고도 보람찬 투쟁을 걸어왔다.

# 간 고 한 투쟁과 전진의 85년 로정

오늘은 월남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의 깊은 날이다. 월남공산당 창건 85돐을 맞이한것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는 월남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내고있다. 돌이켜보면 월남공산당은 월남인민이 따르고 사랑한 조지령주의 령도밑에 자기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일찌기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그는 1930년 2월 여러 공산주의조직들을 합쳐 월남공산당을 창건하였다.

이것은 월남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다. 혁명의 전위부대인 당이 창건됨으로써 월남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거둬들이 무력침공을 용감히 짓고서 자주적이며 변혁하는 사회건설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월남공산당은 장구한 기간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월남인민인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지령도 하였습디다.》

월남공산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월남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 간고고도 보람찬 투쟁을 걸어왔다.

이것은 월남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다. 혁명의 전위부대인 당이 창건됨으로써 월남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거둬들이 무력침공을 용감히 짓고서 자주적이며 변혁하는 사회건설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월남공산당은 장구한 기간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월남인민인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지령도 하였습디다.》

월남공산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월남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 간고고도 보람찬 투쟁을 걸어왔다.

# 중 동평화를 방해하는 암적존재

중 동평화문제 로 말하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분렬간쟁쟁에 의해 이스라엘이 생겨났으므로부터 산생되었다.

제국주의세력의 적극적인 후원밑에 이스라엘이 일으킨 수차례의 침략전쟁으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비롯한 여러 아랍나라들의 땅이 파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대부터 이 지역에서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아랍나라들과 이스라엘사이의 치열한 대결의 력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 동평화문제를 산생시킨 주범인 이스라엘의 만행은 날로 횡포해지고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파쑈적폭거는 그 대표적실례이다.

얼마전 팔레스타인인의 가지지대에서는 수십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분쇄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를 벌였다. 팔레스타인기발을 흔들어 반이스라엘구호를 외치는 시위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은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만행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되고있다.

여기에 비추어볼 때 시퍼런 대낮에 적수공원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만행이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집단대학살이며 국제법과 인도주의원칙에 배치되는 반인륜적범죄라는것은 논란 여지조차 없다.

가자지대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의 주택과 공공건물들에 대한 파괴공작을 체계적으로 일으키고있다.

팔레스타인령토에 있는 나무도 베이고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나무에 불을 놓거나 뿌리째 뽑아버리는 놀음을 벌리고있는데 지난해 그 수는 1만 5966그루에 달하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과 그들의 삶의 타진들을 파괴하고서도 지평을 방해하는 도지강렬의 침략공작이 감행되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역에서 토지강탈계획들을 세우고 안전상의 요구라니, 《국유지》라니 하니 하니 하는 등의 당치않은 구실로 팔레스타인인들의 토지를 몰수하고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당국이 발표한 4 655건이 되는 군령에 의해 많은 토지가 몰수되었다. 이렇게 강탈한 팔레스타인땅에는 의례히 유대인 정착촌들이 생겨나고있다.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의 한 일간신문은 이스라엘국방상의 승인한 세 계획에 따라 3개의 군사기지가 철거됨으로써 이와 연결한 3개의 유대인정착촌을 확장할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앞으로 세계 될 유대인정착촌들에 새로운 도로와 수많은 공공건물들이 건설된다고 한다.

보다 엄중한것은 철거된 군사기지가 옮겨지는 곳의 다름아닌 안전장벽무속에 몰수한 팔레

# 자 본 주 의 사 회 의 암 당 한 현 실

경영형편 악화 일본에서 경제체제의 후파로 많은 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있다. 일본회계장편은 최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12월에 전국적인 조강생산량이 그 전체 같은 달보다 3.7% 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금융독점제인 스미토모 미쓰이그룹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리유이 그 전체 같은 기간에 비해 3.2% 감소되었다 한다.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지난해 12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체 같은 달에 비해 5.7% 더 늘어나 349만 6 000명에 달하였다.

1월 27일 이 나라 로동성이 밝혔다. 한편 도이칠란드에서도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얼마전 이 나라 연방 통계국은 1월 현재 전국적인 실

업자수가 284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극심해지는 사회적 불평등 미국에서 극심해지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최근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과 NBC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0%이상이 나라에서 부부색에 따라 사람들이 차별되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흑인인 현 집권자가 취임한 이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개탄하고있다 한다.

각종 범 죄 이탈리아의 북부지역에서 1월 28일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던 마피아조직이 적발되어 160여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이에 앞서 1월 26일 일본

의 나고야에서 19살 난 처녀가 도끼로 70대의 늙은이의 머리를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한편 최근 핀란드에서는 마약수행위가 드러나 많은 량의 약성제가 압수되고 30명의 마약관련범죄자들이 붙잡혔다 한다.

이탈리아의 북부지역에서 1월 28일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던 마피아조직이 적발되어 160여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이에 앞서 1월 26일 일본

의 나고야에서 19살 난 처녀가 도끼로 70대의 늙은이의 머리를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한편 최근 핀란드에서는 마약수행위가 드러나 많은 량의 약성제가 압수되고 30명의 마약관련범죄자들이 붙잡혔다 한다.

이탈리아의 북부지역에서 1월 28일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던 마피아조직이 적발되어 160여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이에 앞서 1월 26일 일본

의 나고야에서 19살 난 처녀가 도끼로 70대의 늙은이의 머리를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한편 최근 핀란드에서는 마약수행위가 드러나 많은 량의 약성제가 압수되고 30명의 마약관련범죄자들이 붙잡혔다 한다.

이탈리아의 북부지역에서 1월 28일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던 마피아조직이 적발되어 160여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이에 앞서 1월 26일 일본

의 나고야에서 19살 난 처녀가 도끼로 70대의 늙은이의 머리를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스라엘의 토지탈탈행위에 항거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집이 없어 한지에서 추위에 떨고있는 미국인